



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28.(금) 즉시	배포 일시	2022. 10. 28.(목) 10:00
담당 부서	수사국 형사과	책임자	과 장 김지한 (032-835-2058)
		담당자	계 장 김기석 (032-835-2161) (010-3627-6176)

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특별단속 강화

- 특별 마약수사전담팀(TF) 신설해 마약류 밀반입 등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 -

최근 정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해양경찰도 해양 마약류에 대한 첩보수집·범죄단속·국제공조 등의 수사력을 집결하여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항포구 및 해안가, 양식장 등지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으로, 10월 11일부터 「특별 마약수사전담팀(Task Force)」를 신설하여 마약수사 인원을 증원시키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17년 60건 38명 → ‘18년 90건 81명 → ‘19년 173건 164명 → ‘20년 412건 322명 → ‘21년 518건 293명 → ‘22.9.30 현재 861건 260명

이번 단속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단속과 병행 추진되며, 「특별 마약수사전담팀」은 김성종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 마약수사 운영 체제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하여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소속기관에 별도로 지정된 ‘해양 마약류 단속 전담반’이 단속에 투입 되고, 전담반은 남해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와 각 지방해경청 및 해경서 전담반으로 구성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수사대·반에서 마약 관련 범죄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인력 부족으로 증가하는 해양 마약류 범죄 단속에 나서기엔 역부족”이라며, “추가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고강도 단속활동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